

목포 산정동 가톨릭 성지화 사업 지지부진

순례객 연간 1만명 넘는 국내 레지오 마리에 발상지 시, 외곽도로·공용주차장 약속해 놓고 5년 넘게 착공 미뤄 국·도비 43억 확보 불구 시예산 반영 안돼 기념관 건립 차질

목포 가톨릭 성지화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정동 성당은 국내 최초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 가톨릭 평신도 봉사단체) 발상지로 상징적 의미가 커 기념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 전주고 광주대학교와 '가톨릭 성지조성사업 시행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2010년 3월 구 '성 콜롬반 병원'부지에 가톨릭 성지조성사업을 위한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 건립 기공식을 갖고 성지화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협약 당시 성당 외곽도로와 공용주차장(1320㎡) 등을 재정지원으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5년 넘게 착공조차 미루고 있다.

특히 성지화 사업 중 하나인 4층 규모의 '레지오 마리에 나눔 봉사 기념관'은 사업비 51억(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중 국·도비 43억2000만원이 확보됐는데도, 내년도 예산안에 목포 시비 7

억80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복성 목포시의회의 의원은 "레지오 마리에 나눔 봉사 기념관 건립은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와 도비는 확보됐는데, 정작 시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돼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산정동 성당은 국내 최초 레지오 마리에 발상지로 550만 전주고 신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레지오 액션 단체에 가입한 신도만 55만 명에 이르는 점에서 관광 자원적 가치는 물론 관광 중심도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만큼 레지오 기념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산정동 성당을 다녀간 방문객은 일반 신도 성지순례 2000명, 레지오 마리에 성지순례 3000명, 피정(避靜) 500명, 선교행사 700명 등 6700명을 비롯한 일방인 관광객 1500명 등 82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 방문 예정자도 1만47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성당 측은 오는 2017년 레지오 마리에



목포 산정동 가톨릭 성지 조성 사업 조감도. 위쪽은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이고 아래쪽 4층 건물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다.

봉사기념관과 성 미카엘 대성당이 완공되면 방문객 수만 2017년 7만1500명, 2018년 11만8000명, 2019년 19만4500명 등 매년 급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시비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내년에 국비와 도비로 착공부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11월 사업비 12억(국비 6억원, 도·시비 6억원)을 들여 목포

전주고 구 교구청(등록문화재 제513호) 원형복원을 위한 보수 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구 교구청 건물 내·외부 보수와 함께 옛 콜롬반 병원 기숙사로 사용될 당시 설치됐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원형복원공사를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 향후 가톨릭 성지와 사업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을 공유재산 관리 빛났다

활용 어려운 토지 매각 2배 ↑ 부채 줄고 재정 건전성 확보

목포시가 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강도 높은 실천에 나선 끝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연평균 6억~7억원 수준이던 보존 부적합 토지(건물) 매각 대금이 올해에는 13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가 밝힌 일반재산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0건 8억, 2014년은 40건 7억80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50건 13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이달 초 매각한 죽교동 465-46번지 외 1필지(166㎡)는 예정가가 4440만원이었지만 최종 1억725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예정가 대비 3.8배에 달하는 낙찰률로 재산관리계의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실적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성과는 최근 박홍률 시장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부채 탕감을 위해 자투리땅이나 맹지, 잔여 토지 등 활용이 불가능한 사유지를 매각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특별주문 후 나타난 결과물이

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앞서 회계과는 지난달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각 실·과·소별 관리중인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을 전면 재조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의 현재 공유 재산은 토지 1만1740필지(1139만4367㎡), 건물 345동(33만466㎡)이다. 이 가운데 일반 재산은 토지 1290필지(24만9000㎡), 건물 16동(5790㎡)이다.

목포시는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현장 위주의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DB 구축 사업에는 ▲지목변경·합병·누락재산 등재 등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공부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태 ▲대부 재산 불법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

정병술 목포시 회계과장은 "DB구축이 완료되면 보존 부적합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대부하는 한편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대상 토지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민선 6기 들어 건축 재정 프로젝트를 통해 32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성과를 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 9경' 담아주세요...내년 전국 사진공모전



목포 9경 중 제2경으로 선정된 목포대교 일몰.

목포시가 빼어난 야경과 풍부한 관광자원 등 새롭게 변화된 관광 목포를 상징할 '목포 9경'을 선정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에 나선다.

목포시는 27일 "목포 9경을 소재로 한 아름다운 사계를 담은 2016년 '목포 9경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 목포 9경을 최종 확정할 뒤 이를 목포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내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목포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총 시상금은 1810만원으로, 금상(1점) 300만원, 은상(2점) 각 150만원, 동상(3점) 각 70만원, 가작(5점) 각 50만원, 입선(50점 내외) 각 15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당선작은 내년 11월 21일 목포시 홈페이지와 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목포시는 지난 11월 유달산권 등 5개 권역 14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목포 9경 선호도 설문조사를 해 목포 9경 대상지를 선정했다.

1경 유달산 풍경, 2경 목포대교 일몰, 3경 갯바위, 4경 출추는 바다분수, 5경 노적봉, 6경 목포진, 7경 삼학도 이난영 공원, 8경 다도해 전경, 9경 사람의 섬 외달도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존 목포 8경이 어려운 한자여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밀도가 부족하다"면서 "계다가 광복 전후에 불린 목포 8경이 새롭게 변화된 목포의 관광자원을 반영하지 못해 목포 8경과는 별도로 목포 9경을 선정하고 전국 사진 공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1000원의 행복 나눔'

매달 월급에서 1000원 적립 목포기독병원 이웃사랑 훈훈

"1000원의 행복을 아십니까" 목포기독병원 '천원 나눔회'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이웃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천원 나눔 봉사회' 회원 60명은 최근 4개조로 나눠 소망복지원, 공생재활원, 목포 아동원, 동민영아원을 찾아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장 김치 담그기, 복지시설 주변 환경정리, 아이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축구활동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목포기독병원 축구 동호회는 아동원생들 중 축구에 관심이 많은 원생들과 함께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축구를 통해 마음에 상처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수 있도록 친목을 도모했다.



목포기독병원 '천원 나눔회'가 최근 아동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간식 제공을 비롯한 동화책 읽어주기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천원 나눔회'는 매달 급여에서 1000원씩 공제해 적립한 금액으로 복지시설에 있는 독거노인·장애인·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습비 등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목포기독병원 '천원 나눔회' 회원들은 "우리의 작은 마음과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뜻있게 사용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06:30~
08:20~11:30	07:30~08:30
11:30~12:00	08:30~12:30
12:00~13:00	12:30~13:00
13:00~17:30	13:00~16:30
17:30~19:00	16:30~
19:00~21:00	
22:00~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

1월 27일(수)

- 08:00~08:20
- 08:20~11:30
- 11:30~12:00
- 12:00~13:00
- 13:00~17:30
- 17:30~19:00
- 19:00~21:00
- 22:00~

1월 28일(목)

- 06:30~
- 07:30~08:30
- 08:30~12:30
- 12:30~13:00
- 13:00~16:30
- 16:30~